

# 진안 인구 2020년 3만 목표

### 군, '인구 늘리기 기본계획' · 6월말까지 '인구 늘리기 종합계획' 수립

진안군은 20일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선제적 대응과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 효과를 얻기 위한 묘안 찾기에 나섰다 밝혔다.

지난해 말 진안군 인구는 2만6,069명으로, 저출산과 높은 유출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미래 지역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적정 인구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버리고 살고 싶은 행복한 진안 실현'을 목표로 △진입유도, △출산장려,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내실 있고 현실성을 갖춘 세부과제를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인구 감소를 제로화 하고, 2020년까지 정주민 3만 명을 조

기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관련 사업을 재정립하고, 3월 중에 일지리와 주거·보육·의료·교육·취농·취촌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발굴한다.

이와 함께 인구 증가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6월말까지 '인구 늘리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늘리기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이 군내 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어 젊은층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 문화, 복지정책이 다른 도시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단기적인 조치에서 벗어나 중장기 대책을 세워 인구 늘리기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군인, 유관기관 임·직원 등 실질적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소이전을 확대 추진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등 인구증가 수요에 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또한 중장기계획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보육정책 강화, 생활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유입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유관기관 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군민 인구 늘리기 운동을 대적으로 전개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 "'올해를 인구 늘리기 골든타임 원년으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완주 경천 편백숲에서 힐링 하세요

완주군 경천면에 힐링 장소로 입소문이 난 '편백나무 숲'을 찾는 방문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군은 지난해 경천리 산 51번지 일원에 군비 2억원을 투입, 가벼운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약 50분~80분 거리 2km 정도 구간엔 편백나무 둘레길과 숲속 도서관 10여개소, 벤치 등 휴식 공간을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천면 편백숲은 26년생 1만 9000여㎡를 포함, 총 6만여㎡ 규모 편백나무가 조성돼 있으며, 특히 지난해 숲 조성 사업을 마치고, 주말에 적게는 60명에서 100명까지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다.

편백나무는 피톤치드라는 천연 항균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비염과 천식을 예방·치료하고 알레르기 와 아토피를 개선하며 면역력 향상과 불면증 해소, 스트레스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다.

박일근 경천면장은 "완주 IC를 지나 대둔산 방향으로 20분쯤 달



러 오복 농촌사랑학교에 도착하면 만나볼 수 있는 경천 편백나무 숲 길을 산행 코스로 선택해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즐기길 바란다"고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지역 소식통

#### 최용득 장수군수,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현장행차 추진

장수군은 장수군수를 단장으로 체계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20일 장수군 청사 신축 현장 및 사암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건설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해빙기가 다가옴에 따라 낙석, 붕괴 등 급경사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사고 사전 예방은 물론 흔히 담긴 성실한 시공으로 안전한 장수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 기관·사회단체 간담회

무주군은 20일 무주읍 최북미술관 2층 다목적 영상관에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한 관내 태권도 유관기관·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정수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문화원(원장 김내생), 무주군관광협회(회장 맹감상),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위원장 이성만), 무주군체육회 관계자들과 관련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대회 개요 및 준비사항 등을 공유하고 2017 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을 위한 군민 참여 분위기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국가예산 확보전략 지방규제개혁 특강

진안군은 20일 각 실·과·소, 읍면 공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예산의 이해와 확보전략', '규제개혁으로 행복한 진안 만들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날 국가예산 특강은 전라북도 박현규 국가예산팀장을 초청해 국가재정의 이해, 정부의 중점예산 투자방향 방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이상민 교수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특강도 이어졌다.

박현규 팀장은 "중앙부처 실무자가 공감 가능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부처 예산편성 시기에 한발 앞선 대응이 필요하다"며 "실무자와의 유대관계 형성해 한번 더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교수는 진안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규제개혁 실천방안과 함께 규제개혁을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인구 늘리기 총력

###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 운동 추진 구체화하기로

무주군은 20일 이태현 부군수 주재로 인구 늘리기 관련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 운동 추진을 구체화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인구 늘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해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여성일자리 지원, 창업활성화 사업 등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시책과 사업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태현 부군수는 "무주군 전체 인구 2만 5천선이 무너지 시점에서 지역발전 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과 체계적인 실천 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부서별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진입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출산율과 전입인구 늘리기

만으로는 자연 사망률을 따라잡기 힘든 것이 난제"라며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획기적인 성과를 발휘하기 힘든 만큼 군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이날 보고회를 기반으로 '무주사랑 3만 패밀리 운동'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으로, 현실성을 갖춘 인구 늘리기 운동 전개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완주군 미래 원동력, <관광자원>로컬푸드 순

### '2016 사회조사 보고서' 관광자원 29.7% · 로컬푸드 29.0% · 산업단지 25.0% 등

완주군의 미래 발전 원동력으로 관광자원과 로컬푸드, 산업단지 등이 대두됐다.

20일 완주군은 최근 내놓은 '2016 완주군 사회조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완주군 사회조사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완주군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중 표본 800가구를 대상으로, 62개 통계지표에 걸쳐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완주군 미래발

전의 원동력으로 전체의 29.7%가 관광자원을 꼽았으며, 이어 로컬푸드(29.0%), 산업단지(25.0%), 인재육성(16.2%)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미래 설계시 중심이 돼야 할 지향점으로는 문화·관광(43.8%), 산업(23.4%), 건강·안전(14.1%), 생태·전원(12.9%) 등으로 조사돼 많은 주민이 경제 활성화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이 실현되는 지역을 희망했다.

'교통복지 1번지'로 부상한 것과 관련,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대책으로

마을버스(35.4%), 시내버스(35.1%), 콜버스(DRT 18.4%) 등이 제시됐다.

이날 "향후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이 원활토록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사에 따르면 33.5%가 노인 일자리 확대를 꼽았으며, 이어 보육시설의 서비스 향상(25.8%),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연계 확대(16.9%), 사회복지관 건립(14.5%) 등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장수군 플로스텍, 조달청과 다수 공급자 계약 체결

장수군 천천농공 단지에 입주한 플로스텍(주) (대표이사 홍석원)가 최근 조달청과 토목용 PVC 상, 하수관에 대해 다수 공급자 계약을 체결, 관심을 받고 있다.

KS, KC 인증제품 만을 100퍼센트 생산 판매해 조달청으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공급자 계약을 체결,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전국의 조달 시장 진입이 가능해져 지역사회 고용창출 효과에도 큰 기대가 된다.

플로스텍(주)는 재료의 보관 싸이로, 배합설비, 제조설비, 검사장비 등 모든 설비를 구축하고 소재의 배합,

분산, 압출 가공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2000평 부지의 플로스텍(주)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이번 계약제품 외에도 PVC 이중벽관, 오수받이 등 토목용 제품과 건축용 오수, 배수, 수도관 등 PVC제품 일체를 생산해 PVC전문 종합메이커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플로스텍 관계자는 "최고 품질과 신제품, 신기술 개발에 힘써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상수도 배관 전문 기업을 만드는 주역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음식컨설팅 사전설명회 개최

신선한 로컬푸드와 건강한 먹거리로 해마다 호평 받아왔던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음식이 더욱 맛있고, 새로워진다.

완주군은 지난 17일 중앙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2017 와일드푸드축제 음식컨설팅 사전설명회'를 열고 제7회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음식부스 운영방향 설명 및 발전 방안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로컬푸드나라 마을밥상과 포차나라 간식부스 운영을 희망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군은 앞으로 메뉴 선정, 컨설팅 진행, 위생 및 서비스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축제장 음식으로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김재열 관공체육과장은 "3년 연속 문화관광유망축제로 선정된 와일드푸드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하고 재미있는 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와일드 음식·체험 프로그램 공모를 오는 24일부터 실시해 이색·야생음식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라북도 |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4-30 (7일간)